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지용

복음전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요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방법으로도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전도와 선교 전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2010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국내전도와 해외단기선교에 매진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선교해야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행 16:7,10). 당장 오늘부터 전도와 선교를 위한 ‘4시기도화’(갈 3:2)로 오십시오! 전도와 선교는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할 한 영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2010년 2월



교회주요일정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승리

(로마서 8:31~39)

로마서 5~8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들은 살 것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8장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그 영역을 잃어버림도 보여 주었다(롬 8:1~2). 이제 8장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사랑이다(롬 8:31).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력은 아직도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우는 사자 같이 덤벼들고 있다(롬 7:8,11).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요 3:16).

바울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거나 고발할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안전하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누가 정죄하리요?”(롬 8:3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롬 5:10, 8:34). 바울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 8:35~36; 시 44:22).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이라면 고난은 우리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한다(요 16:1~4, 16:33).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사망을 둔 신앙인의 삶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롬 8:37).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롬 8:38~39).

지금까지 로마서의 주제인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살리라”를 총 8장에 걸쳐서 살펴보았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로서 아무도 자랑 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롬 5장), 죄(롬 6장), 율법(롬 7장), 사망(롬 8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로마서 5~7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모든 다른 권세자들은 그 힘을 상실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 세계의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결론적으로 사망을 포함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7일 (주) 제4차 CMTC(찬양예배 우)

10일 (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우)

17일 (수) 개회 수요일

(나순길 특별대백기도와, 4월 3일까지)

종려교의 주변전도

(수요1부예배 우, 여전도회)

20일 (토) 종려교의 주변전도

(오우 2시, 남전도회)

26일 (금) 2010년 제1차 정기기운

(금요찬양집회)

28일 (주) 2010년 제1차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GOD'S INVITATION

(¹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the second time, while he was still confined in the court of the guard, saying, (²“Thus says the LORD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to establish it, the LORD is His name, (³‘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Jeremiah 33:1~3)

You and I are living in very difficult times. Perhaps our pers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s are a little different, but one thing we have in common is tough times. We cry, we get sick, and we try to keep going. Jeremiah lived in tough times too. All his life he loved God, his nation, and his people, but people despised him. They hated him and put him in jail because he spoke God's word. Even after his people were taken captive, he continued to love them and share God's word with them, but they rejected his message. During his imprisonment, the Lord God encouraged His servant Jeremiah with an invitation. When your heart and my heart cry to the Lord God, like Jeremiah, He never ignores us. In today's Bible verses God invites a weeping prophet to a life of miracles. God's invitation to Jeremiah also extends to believers in Christ. When you and I pray to the Lord, miracles always happen in our life because of God's great invitation. Without doubt, prayer brings God's miracles into our life.

Prayer is an invitational privilege. God says, "Call to Me" (Jer. 33:3). He invites you to call Him. Without praying you cannot call to God, but when you pray you are calling to God. Prayer always begins with God's invitation. Jeremiah was undergoing a very troubled situation when God invited him to call. The weeping prophet was given an invaluable resource. The Bible offers many invitations to pray. Jesus said,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Mt. 7:7-8). When we pray, we need to trust God. If our insides don't believe in His word or His promises, then you cannot receive His miracles. You doubt the power of God when your own desires take over, "You lust and do not have; so you commit murder. You are envious and cannot obtain; so you fight and quarrel.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You ask and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s, so that you may spend it on your pleasures" (Jas. 4:2-3). God's power is meant for God's will, not for our own selfish ideas. God's people can call to Him with confidence because His grace always comes in our times of need,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Therefore let u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Heb. 4:15-16).

Prayer comes with a promise. God says,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Jer. 33:3). God will answer! Jesus not only died for your sin, but He resurrected and now has victory over death, not only that but He is preparing your eternal home and has promised to come back and pick you up. Do you believe it? Not too many people really believe it. Today's Christians practice prayer like theology therapy or think prayer is like a spinning wheel of chance where sometimes God answers and sometimes He doesn't. God not only hears His children's prayers, but He answers each one. Do you know the power of God's word? Do you know that He talked this earth

into existence? God promises He will answer. He answered Abraham and gave him a son when he was one hundred years old and his wife was ninety nine, "So Sarah conceived and bore a son to Abraham in his old age, at the appointed time of which God had spoken to him" (Gen. 21:2). He answered Elijah and sent down fire, "'Answer me, O LORD, answer me,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 back again.'" Then the fire of the LORD fell and consumed the burnt offering and the wood and the stones and the dust, and licked up the water that was in the trench" (1 Kgs. 18:37-38). He answered Jesus in front of Lazarus' tomb,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The man who had died came forth, bound hand and foot with wrappings, and his face was wrapped around with a cloth. Jesus said to them, 'Unbind him, and let him go'" (Jn. 11:43-44). He answered Peter as he healed a paralyzed man, "Peter said to him, 'Aeneas, Jesus Christ heals you; get up and make your bed.' Immediately he got up. And all who lived at Lydda and Sharon saw him, and they turned to the Lord" (Acts 9:34-35). God still answers your prayers.

Prayer has power. God says,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 (Jer. 33:3). You have power that you don't even know about. When we call to God in faith, He answers, and His answers are powerful. Do you believe it? Ephesians 3:20 says,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far more abundantly beyond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within us." I hope you believe it. Jesus said, "Because of the littleness of your faith; for truly I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the size of a mustard seed, you will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and nothing will be impossible to you" (Mt. 17:20). Nothing is impossible! God empowers each individual differently, "For to one is given the word of wisdom through the Spirit, and to another the word of knowledge according to the same Spirit; to another faith by the same Spirit, and to another gifts of healing by the one Spirit, and to another the effecting of miracles, and to another prophecy, and to another the distinguishing of spirits, to another various kinds of tongues, and to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But one and the same Spirit works all these things, distributing to each one individually just as He wills" (1 Cor. 12:8-11). Amazing power is available, but the sad news is that we don't utilize it because we don't really believe it.

My dear friend, there is no limit on our calling to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rough Him. Jesus said,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Mk. 9:23). Do you believe? Please accept God's invitation and do not doubt His word. Do not be discouraged! Pray for your family, friends, church, and country. Pray for lost souls, pray for your personal needs, and expect God to answer your prayer. Are you feeling discouraged now, or are you ready to go out these church doors and start facing these tough times through prayer? 

하나님의 초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1~3)



김성판 목사

여러분과 저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조건과 환경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서 병이 나도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레미야 역시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와 하나님은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권면의 말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면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불러들입니다.

기도자의 특권

기도자에게는 초대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렘 33:3).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으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아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의 선지자에게 무한한 능력의 원천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해야 할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마 7:7-8).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이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너희는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너희가 살인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골 3:3).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쓰러지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막 4:2-3).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연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 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기도자에게 약속하심

기도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렘 33:3).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마치 종교적인 치료법처럼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쩌다 하

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가끔은 받지 못하는 복권의 추첨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땅이 생겨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는 99세였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창 21:2).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와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는 하나님이니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에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은지라”(왕상 18:37-38). 하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곧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자기를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요 11:43-44). 하나님은 베드로가 중생방향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뭇다와 사루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행 9:34-35).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기도자의 능력

기도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분의 응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28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전 12:8-11).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지만 슬픈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의 죽음 19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4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발견하고 있다. 특히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복음서를 비교하는 일은 참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메시아의 죽음을 다룬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겠다. 겐제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힐 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 한 사람의 귀를 잘랐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마태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노니라"(마 26:52)고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라"(요 18:11)고 기록하였다. 마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반면 요한은 베드로의 이름을 밝혔다. 또한 각각 말씀하신 바가 다르다. 같은 사건이지만 각 복음서 기자의 설명이 다르다.

군인들에게 잡힌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셨다. 이것에 대해 마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고 기록하였다(마 26:57). 요한은 예수님이 먼저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 갔다고 기록하였다(요 18:13). 두 복음서의 저자가 동일하게 '가야바'를 언급하였지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차이가 난다. 또한 십자가에 쓰인 죄명에 대한 내용도 다르게 설명하였다. 마태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명을 붙여더라"(마 27:37)고 썼고, 요한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요 19:19)고 썼다.

이러한 차이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설명에서도 볼 수 있다.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이면 예수의 제자인 것에 대해서 요한과 마태는 동일하게 밝혔다. 그러나 요한은 은밀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요 19:38)했다고 기록한 반면, 마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순히 요셉이 '부자'(마 27:57)였다고 언급한 것이 눈여겨볼만 하다. 아마도 제자가 되기 전 제리로서 부요한 생활을 하였던 마태의 눈에는 요셉의 부요함이 눈에 더 들어오지 않았나 추측할 따름이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대해서 두 복음서 기자는 '새 무덤'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기술하였지만, 요한은 장소에 대해 설명(요 19:41)했고 마태는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마 27:60)이라고 설명하였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마태와 요한의 기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건 자체에 대한 모순이라기보다 두 기자의 관점, 발췌한 자료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성경의 무오를 의심하는 여러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는 십자가다. 자신의 열정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와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수호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했던 종교지도자들이 바로 우리다.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패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무엇을 바라보며 붙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자. 아멘.

*매주 필요재미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1부예배 메시지(2010. 1. 27)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1~3)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낼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로 들어온 거짓가림과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양심과 문화를 우선하며, 인간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헛갈려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과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히 1:1).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마르레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만년 세 사람은 하나님이나 보신단 천사들이었다(창 18:1~2). 그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였다(출 3:4~5). 아무런 가지도 없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와 대면하셨다.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시 8:1~9)을 들었으며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단

7:13~14)을 들었다. 베드로는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베후 1:21).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히 1:2).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 2:17).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단 12:4).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급격한 현상(마 24:7~12)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으며 사도 요한에게는 환상(계 13:13~18)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과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3). 그러나 세상은 물론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일쑤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롬 5:1, 10, 8:11).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선지자들조차 알지 못했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다(골 1:26~27; 고전 15:51~52, 57).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계산법에 따라 살려고 한다. 예수와 십자가보다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법에 관심을 쏟는다. 이와 같이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죄인임이 분명하다.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

이것은 전쟁이다. 악한 마귀의 군사와 처절한 전투를 벌인 느낌이다. 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나의 두 번째 선교... 첫 사역 때와 달리 언어도 철저히 준비했고 기도도 많이 했다.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할 것만 생각하며 선교지로 떠났다. 처음엔 일반적인 승리인 듯 했다. 매 시간 사역 때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영혼들로 인해 하늘엔 나팔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기 단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기도와 함께 천국엔 잔치가 벌어진 듯 한 느낌.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마귀들의 권세가 아니었다. 이미 교만하여진 내 속에 악한 마귀는 침투하여 역사하며 혼돈에 대가 시작됐다.

내 속의 역사는 마귀로 인해 원인을 남의 탓으로 생각했다. 사역평가회 시기에는 좀 더 나은 사역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역을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이미 주님을 배제한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며 다른 팀원의 사역을 평가하여 비판하며 상처를 입었다. 평공을 가하는 마귀에 역사가 커다란 상처를 입은 나는 이미 공격력을 상실한 상태.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아직도 나의 수단 방법으로 애쓴다. 간신히 전후에 입한다. "아! 힘들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귀의 공격은 더욱 막강해졌다. "주여!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소서." 우리의 열심과 지식과 경험을 사역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며 회개의 눈물을 지새운 밤.

누추한 말구유에 예수님을, 40일 금식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피와 땀으로 얼룩진 골고다의 십자가 지심, 실제 전도의 대상인 저 불쌍한 영혼들은 주님 예비하신 대로 맑은 눈으로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한 한 마귀는 내 속의 역사하며 의지를 꺾어 접근자체를 방해하려는 간교함. 빠른 속도로 상처가 아물면서 전투력을 회복한 나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우리 대장 예수 기를 가지고 접전하는 그곳에는 승리만이 있었다.

주영진(집사, 14교구)

회개를 통한 선교

3개월의 선교훈련을 마치고 선교지로 향할 때의 마음은 '손짓하며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맑게 복음을 전하리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막상 한국과 다르게 무더운 날씨를 접하자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열악한 환경과 뜨거운 날씨는 그런 입술의 고백과 다르게 나의 몸을 힘들게 했다. 금요일마다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불렀던 찬양도, 체험했던 은혜도 그런 환경 앞에서 어느새 사라졌다.

이동할 때마다 찬양으로, 기도로 무장했지만 여전히 선교지의 영혼보다 나 자신을 사랑함을 보게 되었다. 그런 나의 모습과 달리 그곳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도 순수하고 따뜻했다. 간혹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환하게 웃었다. 어린아이들은 마을 어귀부터 계속 따라오며 때로는 구경꾼으로 때로는 동역자로, 찬양과 물품을 함께 하기도 하고 쏙쓰러운 모습으로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루 하루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 그들 앞에서 나의 더러운 모습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은 나에게 '너, 영터라였다.'라고 꾸짖으시며 동시에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심을 마지막 집에서 보여주셨다.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아이들 앞에서 몇 번이나 찬양하고 울 동했는데 쏙쓰러운 아이들은 깨만 눈물을 반박하기까지 가지 않고 지푸라기처럼 따라다녔다. 그런데 한 아기의 손짓을 통해 울동하기를 원했고, 그 아이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기와 아빠가 손을 흔드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니고선 말할 수 없었다. 공중과 사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오리라 우리를 사랑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사역을 기뻐하심을 그들의 환송식을 통해 주님은 체험하게 하셨다.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꼈고, 수년 내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돌아왔다. 여전히 입술로만 주님 사랑하는 회개한 무덤 같은 내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신 시간이기도 한 이번 선교에 복음의 도구로 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경진(집사, 3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6일(화) ~ 2월 2일(화)	고동부 1팀	구승희
1월 26일(화) ~ 2월 2일(화)	고동부 2팀	윤숙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1월 18일(월) ~ 1월 26일(화)	19교구 1팀	이수애	1월 22일(금) ~ 1월 30일(목)	청년1부 1팀	정언선
1월 21일(목) ~ 1월 29일(금)	7교구 1팀	송한현	1월 22일(금) ~ 1월 30일(목)	2교구 1팀	홍순길

몽골에서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었다. 나의 집에서 시작된 모임을 키웠고, 학교에서 사역을 하는 데 나의 계획과 준비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약한 몸인 자라 나는 학교 사역에만 힘을 쏟고 싶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현지에 주님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나의 남편과 자녀들은 모두 한국에 있었고, 따라서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맞지 않았다. "교회를 하게 되면 책임감이 더 있어야 하고 한여름도 가야 하는데. 하지만 또 주님이 이기시겠지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방 두 칸에서 교회를 해요. 3칸짜리를 주시면 할게요."라고 나는 기도하였다. 주님은 이 기도에는 즉시 응답하셨고, 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탄하며 교회를 시작하였다.

특히 주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다. 바로 시편 132년 13~18절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받고 나는 한없이 울었다. 주님의 섭리하심은 분명 나의 계획, 지식, 경험으로 가능할 수 없었고 내가 아닌 주님이 이루어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참빛하느나라교회'라고 현지어로 교회 이름도 정했고, 지금은 주님이 믿음을 주신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 1세기 초대교회에

'참빛하느나라교회'를 세우기까지(2) 성령의 역사, 열매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다.

2004년 8월 23일 주일, 주님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인간의 어떤 계획과 절차가 아닌 주님이 직접 파송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를 후 나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무자정 선교지로 갔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선교지에서 그대로 열매 맺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은 진짜였다. 한국에서 홀로 있는데 남편과 자녀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내 주님은 나에게 주 안에서

에서의 가족을 보여 주셨기에 평안하다. 사역을 시작한 지 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게 열매된 양고기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지니 그것도 감사하다. "죄뿐인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재권(집사, 현지인교회(사역자))

"당기선교의 열매인 현지인 교회가 세워져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의 기도다."



꿈같은 중등부 수련회



갑작스런 폭설 때문에 나는 수련회를 하러 기도원으로 가지 못하게 될까와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 날씨가 영기되어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수련회 날!! 나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별별 생각을 다했다. '완전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영접할 수 있을까?'

첫 날 마음문이 열리다



기도원에 도착했다. 개회예배를 드리고 조별 도미노 게임을 하였다. 이 게임은 이번 수련회 주제인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각 조마다 글자 하나씩 말아서 도미노를 쌓는 것이었다. 이 게임으로 각 조마다 몇 번의 실패를 맛보았지만 덕분에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은 수련회에서 빠져선 안 되는 '부흥회' 시간이었다. 이

날 부흥회는 학부모 초청 기도회로 준비되었다. 부모님은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였고,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무릎을 꿇달라고, 어떤 걸 달라고만 말하고, 짜증내고, 주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러자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둘째 날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아침 독상을 하고 밥을 먹은 뒤 조별 성경공부에서 유언장을 쓰고 '성경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테마 #1'을 했다. 우리는 4복음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성경책에 대해서도 알게 된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찬양연습을 한 후, '천로역정'이란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나의 뇌는 정말 예수님의 피 밖에 씻을 수 없다는 걸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 마치고 밥을 먹은 후 두 번째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 나는 그 전날 부흥회를 하면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난 이미 하루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았으며 배척과 기도하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도를 한 후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하나하나가 내 마음 속 깊이 들어왔다. '정말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구나. 내 소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있었지만 정말 입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맘에 들어오시고 난 너무 기뻐 기도를 더했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기도회를 끝낸 후 다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마음이 가벼웠고 그냥 즐거웠고 감사했다. 이런 기도의 효과인 것 같다.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 마치고 밥을 먹은 후 두 번째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 나는 그 전날 부흥회를 하면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난 이미 하루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았으며 배척과 기도하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도를 한 후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하나하나가 내 마음 속 깊이 들어왔다. '정말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구나. 내 소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있었지만 정말 입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맘에 들어오시고 난 너무 기뻐 기도를 더했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기도회를 끝낸 후 다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마음이 가벼웠고 그냥 즐거웠고 감사했다. 이런 기도의 효과인 것 같다.



마지막 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밤은 정말 의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중등부 겨울수련회의 마지막 날 아침을 맞았다. 그 날 프로그램은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테마 #2'였는데 각 조별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역할극을 짜는 거였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일진역을 맡았다. 일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성도자들의 복음전파를 듣고 영접(예수님)을 하는 것이었다. 역할극을 모두 다 잘해서

우리 조가 1등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쉽진 않았으나, 프로그램이 끝나고 폐회예배를 할 때 실감이 났다. 수련회 왔다는 걸, 그만큼 꿈같은 수련회였다. 2박 3일 동안 있었던 모든 것. 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은미(중등부)

새가족양육부 1월 수로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 지금까지 사는 동안 늘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지만 믿음의 부족과 세속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직장동료의 권유로 중헌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큼 모두가 평온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을 주시고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써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되었습니다. (양길영)

❖ 중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 이 교육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가족양육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에 놀랐고 주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제목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 다. (김정희)

❖ 성도들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아진 것 같고 주일을 지키며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피 값으로 나를 샀고 구원케 하였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감사와 순종하며 봉사하고 전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조경선)

❖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 예수님 믿지 못한 것 아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영성이 열심이 믿겠습니다. (민효성)

❖ 아내를 통해 같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새가족양육부를 통하여 교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앞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민병호)

핸드벨 연주대 / 주간충현 기자단



하나됨의 선을 핸드벨 연주대

국내에서 제일 큰 핸드벨 연주대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60여 명이 넘는 대원들, 그것도 초등학교부터 청년년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은혜다. 놀란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특히 이들이 드리는 찬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들의 연주는 더욱 값지다. 이들의 수련회가 지난 화요일 교회에서 있었다.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고백도 핸드벨의 하모니로 느껴진다.

- ▶ 퀘스트대회 때 했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서... 완전 짱! 이다혜(초등1부)
- ▶ 너무 재미있었다. 비록 팀별 대회에서 우리 팀이 졌지만 그래도 좋았다. 천은진(초등2부)
- ▶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와서 마음을 두고 교제하면서 좋았다. 특히 위임목사님과 무겁지 않게 나누는 시간들은 제일 기억에 남는다. 강하은(고등부)
- ▶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됨을 느껴서 좋았다. 늘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찬양에 임할 것이다. 이준형(대학부)
- ▶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죄와 계명을 돌아 볼 수 있었다. 어디서나 일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다. 더 겸손히 낮아져야겠다. 김선주(청년1부)
- ▶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한희정(총무)
- ▶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느꼈다. 김유경(시회)
- ▶ One for All, All for One. 주님에게 예비하신 은사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핸드벨 연주대 모두, 충현교회의 그루터기로 부흥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로 자라나기를 기도드린다. 이이후(대학부)

♡ 새 가 족 을 완 성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2	한상미	12	청년1부	이미재(12)	124	정인성	16	청년1부	송광주(16)
113	홍수택	13	소말부	백영기(13)	125	박강동	25	예배대부	김현식(12)
114	홍수택	22	청년1부	오재일(12)	126	황형서	24	청년2부	이민영(24)
115	임혜진	19	청년1부	이영선(20)	127	윤희진	10	청년2부	
116	정재용	4	청년3부	남영순(4)	128	유은민	1	청년1부	
117	박희동	4	청년3부	이월산(5)	129	안수현	22	대학부	김영일(22)
118	추종환	16	청년1부	김옥자(18)	130	김승미	1	대학부	
119	김동욱	22	초등1부	박효순(11)	131	장숙미	17	청년2부	정숙자(12)
120	강유라	17	대학부		132	안정은	17	대학부	정숙자(12)
121	최복종	12	청년3부	이승상(12)	133	허성일	16	청년1부	
122	이승수	3	중등부	양영숙(16)	134	김현진	21	청년1부	
123	정수안	12	청년3부	이월의(1)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셔서 바랍니다.*

주간충현 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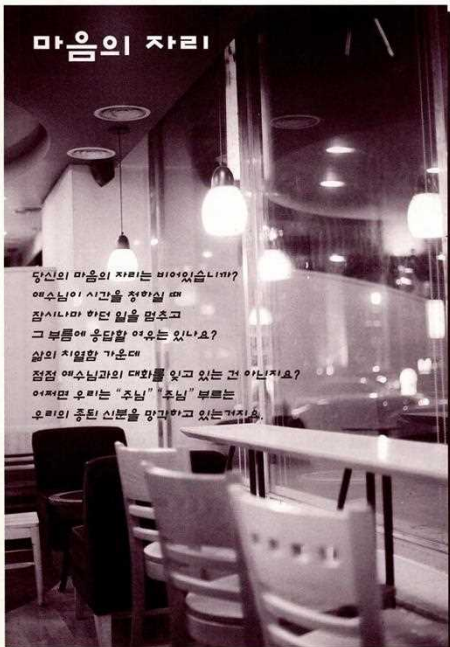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주간충현 기자단이 출범했다. 이제 이들은 충현교회의 곳곳을 돌아보며 은혜의 소식을 (주간충현)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들이 담아내는 그릇에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넘쳐나도록 모든 성도님의 기도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취재 기자 한사라(중등부)/ 김성애(고등부)/ 한영아·노하은(대학부)

이은정·이한석(청년1부)/ 한성혜(청년2부)/ 오남규·강윤석(어린이 및 일반)

사진 기자 원종건(고등부)/ 황정연(청년1부)/ 배상준·박철호(어린이 및 일반)



당신의 마음의 자리는 비어있습니까?

매주일이 시간을 청아할 때

잠시나마 빈틈을 멈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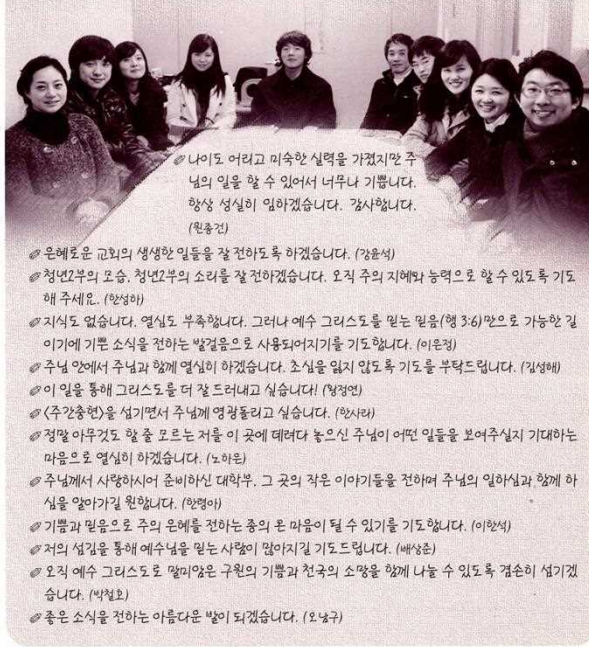
그 부름에 응답할 여유는 있습니까?

삶의 치열한 가운데

점점 예수님의 대화를 잊고 있는 건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주님” 부르는

우리의 종된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요.



▶ 나이드 어리고 미숙한 실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항상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건)

- ▶ 은혜로운 교회의 생생한 일들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석)
- ▶ 청년2부의 모습, 청년2부의 소리를 잘 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성하)
- ▶ 지식도 없습디다. 열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행 3:6)만으로 가능한 일기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은정)
- ▶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열심이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애)
- ▶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도를 더 잘 드러내고 싶습니다. (황정연)
- ▶ (주간충현)을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한사라)
- ▶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이 곳에 데려다 놓으신 주님이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이 하겠습니다. (노하은)
- ▶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준비하신 대학부, 그 곳의 작은 이야기들을 전하여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알리기길 원합니다. (한영아)
- ▶ 기쁨과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전하는 종의 온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한석)
- ▶ 저의 성결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길 기도드립니다. (배상준)
- ▶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박철호)
- ▶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겠습니다. (오남규)

교회소식

별 세

1. 김흥식 집사(김진기 집사의 부친, 신성숙 집사의 사부, 16교구 남대구역)/21일 밤제, 21일 장례
2. 김흥주 은희집사(김희현 권사의 아내, 10교구 전결구역)/24일 밤제, 26일 장례
3. 임은숙 집사(11교구 창동1구역)/24일 밤제, 26일 장례
4. 김범일 태교집사(정형숙 집사의 모친, 지영숙 집사의 장모, 12교구 복동구역)/24일 밤제, 26일 장례
5. 변동순 성도(한기경 집사의 부친, 15교구 서천서원구역, 전결소속)의 모친, 이경숙 집사의 시모, 21교구/25일 밤제, 27일 장례
6. 이옥식 태교집사(정형숙 권사의 모친, 은숙 집사의 장모, 10교구 인현구역)/25일 밤제, 27일 장례
7. 광복호 태교집사(박기영 집사의 부친, 천혜련 안수집사의 장모, 23교구 청송구역)/27일 밤제, 29일 장례

8. 송동업 타교권사(홍정호 집사의 사부, 24교구 신봉1구역) / 27일 별세, 29일 장례

호기

1. 박은영 군(박충규 장로·백영기 권사의 아들, 13교구)과 서은아 양(서충원 목사·김영희 사모의 딸, 타교) / 2월 4일(목) 12:00, 충현교회 갈릴리움
2. 임승한 군(임상화 집사·나복순 집사의 아들, 타교)과 박서영 양(박문선 안수집사·우영희 집사의 딸, 23교구) / 2월 6일(토) 15:0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주소변경

1. 정창수 장로 · 박태순 권사(강남구 역삼동 763-16 래미안 그레이튼 201동 1604호 2교구)

2009년도 하반기 정기회계감사

1. 감사기간 : 2월 7일(주일)~2월 28일(주일)까지
2. 감사장소 : 감사위원회(제1교육관 503호)
3. 감사대상 : 전 교회학교, 전 찬양대, 집사회, 권사회

2010년 전반기 전도회장단 영성훈련

일 시 : 2009년 12월 6일~2010년 1월 31일, 매주일 15:10~16:00
장 소 : 제1교육관 407호

선교언어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장소: 제1교육관 405호(내몽골) 505호(베트남) 509호(네팔)

대학부 겨울수련회

일시: 2월 2일(화)~4일(목) 장소: 충현기도

외선부 수련회

일 시 : 2월 13일(토)~14일(주일)
장 소 : 충청교회(13일 : 제1교육관 407호, 14일 : 아멘홀)

2월 주일 및 수요일에 배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정오)					찬양예배 (한정사: 정오)	수요예배 (간사)	
		I	II	III	IV	V		I	II
2	7	문요한	유상재	전보홍	김단용	이철호	남용술	이근기	방영외
	14	유혜균	최용덕	이민신	장정국	양기수	전홍분	이현숙	장대연
	21	최민석	박덕일	이상재	류기명	오승도	박원하	최종관	김승진
	28	이창희	서영익	박용규	김승관	전은택	김재덕	김정민	김숙희

새벽기도회 (2/1~2/7)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준/신광철	탁정원/오재일	최성득/김언희	박용현/임연수	이광원/권오준	강호성/김정연	장 훈/임태주
설교 본문	마사야의 죽음	빌 1:12-21	빌 1:22-30	빌 2:1-11	빌 2:12-18	빌 2:19-30	빌 3:1-11

예배 담당 (2/3~2/7)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2/3	수요 I	내 하나님 만가기를 준비하라(암 4:12) 김성관 목사	박용원	이명국	죄짐을 지고서 곤하되(호산나 찬양대)
	수요 II	완없는 구원의 은혜(눅 7:36-50) 이순식 목사	김백만	이영희	갈비뼈 향유를 주게 드린(실심안 찬양대)
2/5	금요일왕	김성관 목사	강호성	예루살렘 찬양대 / 바이올린 김소연 / 소프라노 오지수	
2/7	주일 I	하나님의 초대(렘 33:1-3) 김백만 목사	이순식	문옥지	(예배 전 찬양)
	주일 II	하나님의 초대(렘 33:1-3) 하종철 목사	이광현	유성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와 / 소프라노 안선희(예배 찬양대 지휘)
	주일 III	하나님의 초대(렘 33:1-3) 김성관 목사	장 훈	전종윤	구주와 함께 나눴으니와 / 비올라 유혜경(현악파사 오케스트라)
	주일 IV	하나님의 초대(렘 33:1-3) 김익현 목사	이재현	김진용	우리 주 십자가와 / 플루트 권윤영(아연 오케스트라)
	주일 V	하나님의 초대(렘 33:1-3) 유성현 목사	김근영	이성호	내 마음속에와 / 플루트 권윤영(아연 오케스트라)
주일왕왕	빌립의 사역(행 8:26-40) 김성관 목사	박준식	남용순	다윗왕 / 2구주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주일성찬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양심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일출산
금요창아	자정 10:30	금요일양심회 후당분 일출산

오전 11시에 드시는 주부 및 부에 배는 열차 차량, 열차에 있어 수분으로 오후 1시에 드시는 주부 및 부에 배는 열차 차량,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한어, 인도네시아어(아랍어 포함) 등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at Sur Lanki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10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초등1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초등2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부	오전 10:30	갈림리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구분	시간	장 소
장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50	제1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10호
소 말 부	오후 12:15	강 일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북지관 지하홀
예배다부	오전 9:00(약) 오후 1:00(상선)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6:00 (부) 저녁 6:30~9:00	선교관 1층
생각자유학부	오후 12:10	배 다 니 홀
국제교회권교부	오전 11:00	야 먼 홀
유대교종교서신	오전 8:30~오후 1:30	제1교육관 7층
출처여미리교회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출처여미리교회	주간교육	출처여미리교회

1월 충현 기도의 창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 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리게 하소서.
-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마 14:6)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갈게 하소서.
- ③ 영임독서님을 십자가의 복음(로 1:3-4)을 전하는
봉로로 사용하게 주시고, 영성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④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진리를 예매(마 4:24)를 위하
여 미리 준비(마 15:26)한 신실한 착실하게 하시며 그 그
리스도를 만나는 은사를 배부루소서.
- ⑤ 25개 구역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는 주교교인들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⑥ 1년 1년 1명(1·1·1)로 되도록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전 1:3)에 중심전하게 하소서.
- ⑦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전교회
(면 185개)에 자기를 부린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하의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보수·식물들이 복음의 도사로 사
용되게 하시고 충현복합문 및 전례 주전(양원형, 남글
식, 향양원형)등 중진 사립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로 12:2)가 되게 하소서.
- ⑨ 2010년 겨울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전진(전후 3167)가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몰사 김 석 관

- | ■ 사무처장 | | | | ■ 부처장 | | | |
|-------------------|-------------------|-------------------|---------------------|--------------------|---------------------|---------------------|---------------------|
| 강원철
가평출
강원출 | 고재술
강원출
강원출 | 구원철
봉화출
강원출 | 구재환
제주시출
제주시출 | 권명옥
제주시출
강원출 | 강영기
제주시출
제주시출 | 강오성
제주시출
제주시출 | 김건영
제주시출
제주시출 |
| 김기영
제주시출 | 김기철
제주시출 | 김단용
제주시출 | 김정환
제주시출 | 김철호
제주시출 | 김성현
제주시출 | 김학찬
제주시출 | 박용환
제주시출 |
| 김정호
제주시출 | 김진국
제주시출 | 김연근
제주시출 | 김연태
제주시출 | 김영환
제주시출 | 박기진
제주시출 | 박지훈
제주시출 | 이건희
양주출 |
| 김영은
제주시출 | 김영주
제주시출 | 김우식
제주시출 | 김홍수
제주시출 | 김순철
제주시출 | 양태선
제주시출 | 유재현
제주시출 | 윤환관
제주시출 |
| 김정국
제주시출 | 김정철
제주시출 | 김대식
제주시출 | 김홍우
제주시출 | 김기하
제주시출 | 이순식
제주시출 | 이희식
제주시출 | 장성철
제주시출 |
| 노광현
제주시출 | 류기영
제주시출 | 류기호
제주시출 | 박희숙
제주시출 | 박희숙
제주시출 | 장 호준
제주시출 | 정건호
제주시출 | 최석호
제주시출 |
| 박영호
제주시출 | 박성태
제주시출 | 박성명
제주시출 | 박용옥
제주시출 | 박규환
제주시출 | 박정현
제주시출 | 하준철
제주시출 | 최진철
제주시출 |
| 배준식
제주시출 | 배준식
제주시출 | 석성일
제주시출 | 송두식
제주시출 | 신광철
제주시출 | 정기현
제주시출 | 하영록
제주시출 | 황인영
제주시출 |
| 신상수
제주시출 | 안동진
제주시출 | 안석원
제주시출 | 유기환
제주시출 | 염보복
제주시출 | 강덕태
제주시출 | 강옥연
제주시출 | 김길자
제주시출 |
| 오은호
제주시출 | 원환용
제주시출 | 유성태
제주시출 | 유석민
제주시출 | 전도원
제주시출 | 김영미
제주시출 | 김장자
제주시출 | 나영선
제주시출 |
| 이계인
제주시출 | 이달복
제주시출 | 이보신
제주시출 | 이상복
제주시출 | 이상식
제주시출 | 류진희
제주시출 | 송준정
제주시출 | 서명환
제주시출 |
| 이재철
제주시출 | 이성철
제주시출 | 이성호
제주시출 | 이성호
제주시출 | 이희철
제주시출 | 윤윤식
제주시출 | 이복춘
제주시출 | 오승현
제주시출 |
| 이태식
제주시출 | 이효일
제주시출 | 이 훈
제주시출 | 임정호
제주시출 | 임정호
제주시출 | 임태주
제주시출 | 전은희
제주시출 | 정원희
제주시출 |
| 장철근
제주시출 | 장철근A
제주시출 | 장철환B
제주시출 | 장계식
제주시출 | 전건배
제주시출 | 최문순
제주시출 | 홍순애
제주시출 | 황순환
제주시출 |
| 전정호
제주시출 | 전정호
제주시출 | 전정호
제주시출 | 전정환
제주시출 | 장태동
제주시출 | ■ 인사팀장 | ■ 인사팀장 | ■ 인사팀장 |
| 조준환
제주시출 | 조준환
제주시출 | 조지수
제주시출 | 최낙재
제주시출 | 최용복
제주시출 | ■ 인사팀장 | ■ 인사팀장 | ■ 인사팀장 |
| 차신숙
제주시출 | 최정화
제주시출 | 최희선
제주시출 | 최희선
제주시출 | 최희선
제주시출 | ■ 인사팀장 | ■ 인사팀장 | ■ 인사팀장 |
| 수정환
제주시출 | 황인영
제주시출 | 황인영
제주시출 | 황인영
제주시출 | 황인영
제주시출 | ■ 인사팀장 | ■ 인사팀장 | ■ 인사팀장 |